

이쯤 되면 신의 경지

영화 '신과 함께', 강적 '1987' 압도

판타지 대작 '신과 함께-죄와 벌'(감독 김용화)이 첫 맞대결에서 사회파 영화 '1987'(감독 장준환)을 제압했다. 28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하정우·차태현·주지훈·김향기의 '신과 함께'는 27일 하루 동안 전국 1428개 상영관에서 총 5999회 상영하며 49만5485명을 모아 1위를 지켜냈다. 지난 20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 수는 569만7357명에 달한다. '신과 함께'의 폭주를 저지할 유일한 '강적'으로 꼽힌 김윤석·하정우·유혜진·김태리의 '1987'은 1299개 관에서 6070회 상영하며 33만1679명을 앉혔으나 이미 '신의 경지'에 오른 '신과 함께'의 발목을 잡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누적 관객은 38만7241명이다. 통상 한 영화의 누적 관객 수는 개봉 이후 유료 관객 수와 개봉 이전 시사회 등에 따른 유·무료 관객 수를 포함한다.



'1987'은 '신과 함께' 지난 14일 개봉한 정우성·곽도원의 첩보 액션 블록버스터 '강철비'(감독 양우석) 등과 함께 울겨울 한국영화 '빅3'로 꼽히는 작품이다. 앞서 1987년 1월 일어난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소재로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 당시 이야기를 그린 다. '신과 함께'와 마찬가지로 티켓 파워와 연기력을 모두 갖춘 스타급 배우들을 많이 캐스팅했다. 특히 '신과 함께'에서 삼차시의 리더

'강림'으로 열연한 하정우가 그보다는 비중은 적지만 주인공인 '최 검사'로 나와 하정우 대 하정우로 어느 하정우가 승리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렸다. 여기에 '촛불 혁명' 1주년을 맞아 30년 전 일어난 정권의 폭압과 이에 맞선 국민적 저항을 그려며 '피플 파워'를 재조명한다는 주제 의식도 갖췄다. 2012년 12월 대선 직후 한국 극장가를 강타(약 592만 명)한 휴 잭맨·앤 해서웨이·라셀 크로의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의 대성공을 재현할지

가 관심사로 떠오른 이유다. 그러나 영화 전반을 지배하는 무겁고 암울한 분위기와 극장가 주 관객층인 20~30대 여성을 흡인하기에는 지나치게 '울드한 소재'인 것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결국 기대 요소보다 한계 요소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이미 1000만 관객 달성 여부를 넘어 최종 스퀘어에 관심이 집중할 정도로 대세가 된 '신과 함께'를 대적하기에는 일단 힘들다는 것이 영화계 중론이다.

다만 특히 강동원의 특별출연이 "영화에 숨 쉴 구멍을 내줬다"고 김태리가 평가한 것처럼 긍정적인 입소문을 타 여성 관객을 이끌고, 1987년 민주항쟁의 주역인 50~60대가 극장을 찾았다면 출발은 미약해도 결과는 참대했던 역대 사회적 영화의 좋은 기억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28일 오전 7시30분 현재 영진위 집계 통합예매율에서 '신과 함께'(51.7%)는 '1987'(24.9%)를 두 배 넘게 앞서고 있다. /뉴시스

거침없는 맨시티, EPL 18연승 퍼레이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가 18연승 무패행진을 계속했다. 맨시티는 28일(한국시간) 영국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2017~2018 EPL 20라운드 뉴캐슬 원정경기에서 라힘 스탈링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승리했다. 이 승리로 19승1무(승점 58)를 기록한 맨시티는 2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48)와의 격차를 벌리며 선두 자리를 굳건히 했다. 맨시티는 또 EPL 최다인 18연승 기록과 함께 2008년 첼시가 거둔 원정 11연승 기록과 타이틀을 이뤘다. 맨시티 웹 퍼포머인 감독은 2013년 바이에른 뮌헨(독일) 시절 쌓은 최다 연승(19연승) 기록에 1승만을 남겼다. 전반 31분 스탈링의 골이 터졌다. 스탈링은 더 브라운의 패스를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기세가 오른 맨시티는 후반에도 맹공을 펼쳤지만 추가골에는 실패했다. 스탈링의 결승골로 원정 승리를 챙긴 맨시티는 31일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19연승 도전에 나선다. /뉴시스

주방기구회사 넥시스, 여자골프단 창단

주방기구회사 넥시스(대표 최민호)가 여자프로골프단을 창단했다. 넥시스는 28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역삼동의 넥시스 갤러리에서 골프단 창단식을 갖고 KLPGA 박유나(30), 최혜정(26), 임미소(26), 김보아(22), 안소현(22), 이지현(19) 등 6명의 선수를 2018년 시즌부터 후원하기로 했다. 골프단 창단식에는 넥시스 최민호 대표, 박희열 부회장, 서보원 상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텔런트 이광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명지대 김병오 객원교수와 팝페라 소프라노 한아름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이태리 프리미엄 3개 브랜드 런칭을 통한 넥시스의 하이엔드 가구 시장에 대한 출시포에 이어 6명의 KLPGA 선수로 구성된 넥시스 골프단 창단식이 진행됐다. 넥시스 골프단 창단멤버들은 2011년 대우증권클래식 우승 자이자 올시즌 5개 대회에서 톱10을 기록한 박유나를 비롯해 2015년 조선일보포스코챔피언십 우승자 최혜정 등이 있다. 또 국가대표 아마추어 유혜란(숭실고)에게 주니어 육성차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뉴시스

V리그 남녀 인기 1위, 신영석·양효진

울스타전 팬 투표... 48명 명단 확정



역대 최다 팬이 참여한 도드람 2017~2018 V-리그 울스타전 팬 투표와 전 문위원회 추천 선수를 포함한 총 48명의



울스타 명단이 확정됐다. 팬 투표에서는 신영석(현대캐피탈)과 양효진(현대건설)이 최고 인기 선수로 선정

됐다. 한국배구연맹은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한국배구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를 진행했다. 울스타 팬 투표에 참여하는 팬들이 꾸준히 증가(2015~2016시즌 5만8671표, 2016~2017시즌 9만4673표)했다. 이번 울스타 팬 투표에는 총 10만8872표가 투표됐다. 지난 시즌보다 14.9% 증가했다. 남자 K스타팀의 신영석(현대캐피탈)과 여자 V스타팀의 양효진(현대건설)이 각각 8만2155표, 8만575표로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부 최고의 별로 선정됐다. 신영석은 이번 시즌 탁월한 블로킹과 속공으로 맹활약 처음으로 울스타전 최다 득표자로 선정됐다. 양효진 역시 센터로서 돋보이는 블로킹

과 특장능력으로 지난 시즌 이재영에게 내준 울스타전 최다득표 타이틀을 되찾았다. 이번 울스타 팬투표 결과, 지난 시즌 울스타전에서 앙숙 구도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전광민과 문성민이 한 팀으로 뽑히면서 어떤 조화를 보여줄 것인지 기대를 모은다. 여자부에서는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다시 한 번 한 팀이 되면서 지난 시즌 이재영의 부상으로 함께 뛸 수 없었던 아쉬움을 달랠다. 감독 투표에서는 K스타팀 최태웅 감독(현대캐피탈)과 이정철 감독(BK기업은행), V스타팀의 신진식 감독(삼성화재)과 이도희 감독(현대건설)이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감독으로 선정됐다. 한편, 2018년 1월21일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질 울스타전에서는 선수들의 다양한 모습과 다채로운 팬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뉴시스

박효신, 1년 만에 새 싱글 '겨울소리' 발표



가수 박효신이 새 싱글 '겨울소리'를 공개한다고 소속사 클러브 엔터테인먼트가 28일 밝혔다. '겨울소리'는 박효신이 겨울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만든 자작곡이다. 지난해 10월 발매한 정규 7집 '아이 엠 어 드림러'를 통해 심어 송라이터로서의 모습을 증명했던 이후 프로듀서로도 참여한 곡이다. 7집 공동 프로듀서로 활약한 뮤지션 정재일이 함께했다. 클러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정규 7집 이후 1년여 만에 공개하는 '겨울소리'는 따뜻한 선율 같은 곡"이라며 "이번 싱글을 통해 추운 겨울날 작은 따뜻함으로 다가가고 싶다는 박효신의 바람이 팬은 물론 듣는 모든 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겨울소리'는 곧 발매일을 결정짓고, 커버 이미지와 티저 트레일러를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